

공개된 정보

2019년 1월 11일 오후 6시 40분, 강원도 홍천.

산장 앞에서 두 남자가 눈을 맞으며 서 있다. 두 사람은 10분 전 이곳에서 만났다. 먼저 도착한 사람의 이름은 신희성, 자체개발 스마트폰인 'U' 시리즈와 이 기기의 전용 앱인 '지역금고'로 유명한 유흥전자의 사장이다. 나중에 도착한 사람의 이름은 김용희. 유명대학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다. 두 사람은 오늘, 보험회사 UH라이프의 부회장 취시원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다. 하지만 문은 잠겨있었고 두드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다.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할 무렵,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산장 진입로 끝에서 한 여자가 뛰어오고 있었다. 두 사람 다 아는 얼굴이다. 최혜민, 시원의 여동생이다.

얼마 전만 해도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병원을 그만두고 시원의 비서로 일하고 있다고 들었다. 두 사람 앞까지 뛰어온 혜민은 숨을 몰아쉬며 말을 걸었다.

“안 들어가세요? 부회장님 안에 있을 텐데?”

용희는 묵묵히 고개를 저었고, 희성이 대답했다.

“없는 모양이던데? 문이고 창문이고 다 두드려 봤지만 대답이 없어. 전화도 안 받고.”

혜민은 고개를 가우뚱하더니 현관 문고리를 잡고 두어 번 당기려고 시도했다. 문은 확실히 잠겨있었다. 혜민은 문 열기를 포기하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두꺼운 갈색 점퍼에 털모자를 눌러쓰고 얼굴에는 털이 덥수룩한 남자가 걸어왔다. 소개받지 않아도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았다. 산장 관리인 패션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런 차림일 것이다. 관리인은 묵묵히 스페어 키를 꺼내 문을 열었고, 일행은 관리인을 따라 현관 안으로 들어섰다. 안은 깜깜했다.

“어? 불이 나갔나?”

혜민이 중얼거리는 사이 관리인이 누전 차단기를 올렸다. 금세 거실이 환해졌다. 그때 혜민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혜민이 현관에서 스마트폰을 찾아 핸드백을 뒤지는 사이, 용희는 냉장고를 뒤적거렸고 희성은 빈방으로 들어갔다.

“네 부회장님. 여보세요?”

통화 중인 혜민의 목소리에 희성이 방에서 불쑥 머리만 내밀고 물었다.

“형이야? 어디래?”

“모르겠어요.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나고 끊겼는데?”

그때 용희가 욕실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관리인을 불렀다. 그때까지 말없이 차단기만 만지던 관리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신발을 벗고 들어와 주머니에서 스페어 키를 꺼냈다. 욕실이 열리자, 용희가 먼저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도 바로 따라 들어갔다. 시원은 욕조 속에 눈을 감고 누워 있었고, 욕조에는 물이 가득 담겨 있었다. 시원에게 다가가려는 사람들을 제지한 것은 희성이었다. 희성의 눈은 욕조 바깥의 콘센트로 향해있었다. 콘센트에는 2개의 스마트폰 충전기가 꽂혀 있었고, 그 반대쪽 끝은 물이 찰랑거리는 욕조 안에 들어가 있었다. 관리인은 욕실 전기를 차단하고 오겠다고 다시 차단기로 돌아갔다. 관리인이 돌아오자, 혜민은 서둘러 시원에게 다가가 어깨를 흔들었다. 용희는 패닉 상태에 빠진 혜민을 제지하고 시원의 몸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의사로서 사망 진단을 내렸다. 사인은 심장마비. 사망 시간은 방금 전. 어느새 밖에는 눈이 쌓여있었다.

관리인이 곧 경찰에 신고했지만, 현실적으로 다음날 오전은 되어야 출동할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눈이 제법 쌓여 있어 차가 산길을 오르기가 힘든 데다, 시간도 시간인지라 밖은 어두웠다. 일행은 거실에 우두커니 서 있다가 각자 한 명씩 방을 잡아 들어갔다. 가려온 짐을 방에 대충 풀어놓고, 사람들은 거실에 다시 모였다. 이때가 8시. 관리인은 늦은 저녁 식사를 만들기 시작했다. 다들 식욕은 없었지만 일단 조용히 식탁에 앉았다. 그때, 모든 사람의 스마트폰이 울리며 정적을 깼다. 모두에게 똑같은 문자가 와 있었다. 발신 번호는 최시원의 번호. 내용은...

“5명이 모여서 1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살인자는 몇 명일까요?”

모두가 깜짝 놀라 다시 욕실로 돌아갔지만, 시체는 그대로 있었다. 죽은 자가 문자를 보냈단 말인가? 그보다, 살인자라고?



김용희(40)

김용희(40) 남

→ 당신은 범인이 아니다.

* 비밀: UH라이프의 지시에 따라 소견서를 조작해왔다.

* 승리조건: 1. 범인을 찾아낸다. 2. 범인에게 자신의 비밀을 들이지 않는다.

당신의 행적

당신은 유성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이며, UH라이프의 고문 의사를 맡고 있다. 시원과는 고교 시절부터 친구였는데, 의대에 붙고 나서도 다른 과인 시원과 항상 붙어 다녀 '왓슨'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였다.

하지만 당신은 왓슨이라는 별명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 별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당신은 시원의 몸종이나 다를 바 없는 신세였고, 그런 사실을 알기에 친구들도 놀림 삼아 그런 별명을 붙였던 것이다. 나이 40이 된 지금까지, 당신이 그런 취급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은 돈 때문이었다. 대학을 다니던 때는 시원 덕에 UH그룹 산하 계단의 장학생이 되었고, 의사가 되어서도 시원의 덕을 봐왔다. 그만큼의 대가도 있었다. UH라이프의 고문 의사라고는 하지만, 당신이 실제로 하는 일은 깨끗한 일이 아니었다. UH라이프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사고나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면, 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판정을 내리거나 지급금을 깎기 위해 자료를 만드는 것이 당신의 일이었다. 즉, 피보험자의 부상이나 질병이 보험대상이 아니라는 의사 소견서를 꾸며주는 일. 당신 스스로 생각해도 악랄한 짓을 줄곧 해왔다. 이미 지긋지긋해졌다.

최근 당신은 UH그룹의 후계자 전쟁 구도가 한창인 틈을 타, 이 관계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고 있었다. UH그룹은 UH라이프 회장인 중원과 UH라이프 부회장인 시원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UH그룹 최종산 회장의 신임은 시원이 받고 있었지만 파벌은 중원이 훨씬 컸다. 둘 다 UH라이프에 있었기에 내부에서 중원의 라인인 '회장파'로, 시원의 라인인 '부회장파'로 불리곤 했다. 당신은 회장파인 UH계약 최명은 회장의 제안을 받아 UH계약으로 몸을 옮길 계획을 하고 있었다. 즉, 회장파에 투항하는 것이다. 최근엔 중원과도 이 일로 자주 연락하고 있다.

시원도 당신의 그런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렇기에 시원이 소집한 오늘의 모임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고 있었다. 시원에게도 자신의 파벌이 필요했을 테니까. 아군과 적군을 확실히 구분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회장파에 좋은 공물을 바칠 기회인지도 모른다. 당신은 명은에게 문자로 이 모임에 대해 미리 알려두었고, 명은은 그런 당신의 태도에 매우 기뻐했다. 모임에 참가하지 않을 이유는 없었다. 공물이 더 생길지도 모르니까...

홍천에 도착해서 당신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담배를 사는 것이었다. 당신은 흡연을 하지 않지만, 시원이 피울 담배를 사 오는 것은 언제나 당신 몫이었다. 산장에 도착하자마자 당신은 마른 목을 축이려 냉장고를 열었다. 냉장고에서 반쯤 남은 주스 병을 발견했지만, 당신의 신경이 쏠린 것은 다른 쪽이었다. 알약 케이스가 하나 있었다. 당신은 그 약을 알고 있었다. 졸피렘. 수면유도제. 갑자기 몸에 소름이 돋았다. 확실할 정도로 불길한 예감이 덜쳐왔다. 당신은 빠르게 눈으로 산장 안을 훑었다. 모든 방문이 열려 있었지만, 욕실 문만은 닫혀 있었다. 욕실을 향해 걸어가는 당신의 뇌리에 얼마 전에 방영한 시사프로그램의 장면이 계속 맴돌았다. 그것은 졸피렘을 복용하고 자살한 사람들에게 대한 프로그램이었다.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들은 졸피렘이 자살 충동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그때는 시큰둥하게 보았을 뿐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확실하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 시원에게 졸피렘을 처방한 것은 바로 당신이기 때문이다. 그 감은 틀리지 않았다.

시체를 발견한 사람들이 허둥대는 동안, 당신은 침착하게 시체의 사진을 찍어 사망 시각과 함께 명은에게 문자를 보냈다.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 아주 강한 배후의.

* 주의: 김용희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다. 당신은 게임 중 언제나 당신이 시원과 대등한 친구 관계였다고 주장해야 한다.